

## 치매 환자복의 착의실태에 관한 연구\*

### The Clothing Wearing Conditions of Dementia Inpatients\*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류 은 정  
 부교수 박 혜 원  
 교 수 배 현 숙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angwon National Univ.

Assistant prof. : Eun-Jeong Ryou

Associate prof. : Hye-Won Park

Prof. : Hyun-Suk Bae

####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및 절차

III. 연구 결과

IV. 결론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goal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actual wearing conditions of dementia inpatients in order to improve their clothes. The development of comfortable, functional and well-designed clothing for dementia inpatients can improve their clinical care environment and also provide dementia in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with a promoted quality of life.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ield research and interview survey on the inpatient's clothing being used at 10 dementia hospitals and 11 dementia nursing care faciliti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uniforms of light dementia inpatients were the pajamas styles those of the general inpatient's uniforms. The uniforms of severe dementia inpatients were jump suits or pajamas styles.

Second, the top styles of pajamas were shirts of front opening style with buttons, round neckline, full length sleeves and over armholes. Their bottoms were the pants of no opening style with elastic band and full length. The design of the jump suits had back and under opening styles with zippers.

Third, dementia inpatient clothes have to be improved in the areas of sizing systems, structure for putting on and taking off, fasteners and open styles and clothing material, as well as the aesthetic approach.

**주제어(Key Words):** 치매(dementia), 치매환자복 (dementia inpatient clothing), 착의 실태(clothing wearing conditions)

Corresponding Author: Eun-Jeong Ryou,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angwon National Univ., 9# Sarim-dong, Changwon, Gyongsangnam-Do, Korea, 641-773 Tel: 82-55-279-7476 Fax: 82-55-279-7470 E-mail: ejryou@changwon.ac.kr

\* 이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특정기초과제(R01-2005-000-10143-0)의 지원과 2004년도 창원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1. 서론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눈부신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 이미 UN에서 정의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 차지하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그 속도로 볼 때 2019년에는 고령 사회(aged society;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중에서 치매는 21세기에 인류가 당면하게 될 최대의 노인 질환이라 할 만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이강오, 2003).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7월 현재 우리나라 치매 노인 수는 65세 이상 인구의 8.3%(36,400명)로 추산되며, 2010년 8.6%(46,040명), 2015년에는 9.0%(580,000명)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일보, 2005. 9.20).

치매(dementia)라는 용어는 원래 “정신이 나갔다”, 혹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뜻의 라틴어 ‘dement’에서 유래되었으며, 의학적 견지에서 치매는 후천적 원인으로 뇌의 기질적 병변에 의하여 기억력 장애, 언어장애, 행동장애 및 인지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임상적인 증후군을 말한다(Lisman, 1978). 치매는 알츠하이머 병으로 알려진 퇴행성 치매와 뇌졸중으로 인해서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전체의 90% 정도를 차지하며,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덕렬, 강연옥, 1997).

치매 증상은 유병기간이 길고, 인지 기능의 지속적 감퇴와 심각한 문제 행동으로 인해 부양자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 된다. 치매노인 1명의 발생에 따라 평균 3.8명의 부양가족이 필요하며, 치매노인 가족에게 사회적 고립, 역할역전의 스트레스, 가정기능의 파괴, 근심과 우수, 신체 건강의 악화 등을 가져와 치매노인의 가족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시간적, 환경적으로 많은 고통과 부담감을 갖게 되고, 그 결과는 사회 전체적으로도 심각하고 복잡한 영향을 미친다(유광수, 2001). 따라서 치매에 대한 문제는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서 체계적인 접근과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치매와 관련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의학이나 간호학, 노인학,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치료약 개발이나 치료 요법, 치매노인의 간호방법, 부양자의 스트레스와 간병부담 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김남초, 유양숙, 한숙원, 2000), 의류학 분야에서 치매환자들과 관련된 의복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홍나영(1999)은 치매 노인을 포함한 거동 부자유 노인의 의생활 실태 조사와 시판 환자복의 착의 실험을 실시한 연구에서 노인 환자복의 사이즈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치매의 증상을 고려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

치매환자들은 대부분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약한 노인들이고, 옷을 마음대로 벗어 던지거나 배변 관리를 못하여 외관상 민망한 상태로 방치될 수도 있다. 또한 대소변의 잦은 실금으로 옷을 벗기고,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과정을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해야 한다. 이와 같이 치매환자는 다른 노인 환자들과는 다른 임상적 특징과 의생활 환경을 가지기 때문에 치매환자의 고통은 물론 간병인들의 노동 부담과 스트레스는 다른 질병의 환자들에 비해 막중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능적이고 쾌적한 치매환자복 및 위생용품의 개발은 치매 노인환자와 부양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간병인과 의료진의 신체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임상 치료 환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심미성과 기능성, 쾌적성이 향상된 치매환자복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현재 치매 병원과 요양 시설에서 착용되고 있는 치매환자복 및 위생용품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여 치매전문 환자복 설계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 내용 및 조사 방법

본 연구는 치매전문 치료 및 요양 시설에서 착용되고 있는 치매환자복 및 위생용품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치매전문 환자복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연구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치매전문 시설의 유형과 규모(병상수), 환자의 성별, 연령별 구성 현황, 간병인과 환자 비율, 병실 온도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둘째, 치매환자복 및 위생용품의 사용 현황에서는 치매정도별, 성별, 계절별, 사이즈별 치매 환자복의 유형, 하루에 보유하는 환자복 수, 환자복의 교체주기, 사용 중인 위생용품의 종류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 조사(interview survey)를 실시하였다.

셋째, 치매환자복의 디자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물 환자복에 대한 직접관찰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였다.

넷째, 치매환자복 선택 시의 고려 사항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2. 연구 대상 및 시기

연구대상은 보건복지부의 「2005년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등록된 치매전문 치료 및 요양 시설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크면서, 전국적인 분포를 갖도록 총 21개의 시설을 선정하였다. 2005년 6월에서 7월에 걸쳐 훈련된 조사원이 치매전문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환자복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

〈표 1〉 조사대상 시설의 특성 N=21

병 원 현 황		빈도(%)
병원 유형	치매전문병원	5(23.8%)
	노인전문병원	4(19.0%)
	전문요양원(무료)	11(52.4%)
	전문요양원(유료)	1(4.8%)
병원 규모(병상수)	75개 이상 ~ 100개 미만	4(19.0%)
	100개 이상 ~ 150개 미만	6(28.6%)
	150개 이상 ~ 200개 미만	8(38.1%)
	200개 이상	3(14.3%)
병원 소재지	서울, 경기	10(47.6%)
	경상 남, 북도	7(33.4%)
	전라 남, 북도	2(9.5%)
	충청도	2(9.5%)
여환자 / 남환자	2.8명	
환자 / 간병인	4.1명	
병실 온도	여름철	22 ~ 25℃
	겨울철	22 ~ 30℃

사와 실물환자복에 대한 직접 관찰을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병동 수간호사나 관리과장으로 환자복 관리와 구매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이었다.

### 3.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대상은 다음의 〈표 1〉과 같이, 치매전문 병원, 노인전문 병원, 무료 및 유료 치매 요양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75병 상부터 200병상 이상까지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서울·경기권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입원 환자의 연령대는 거의 모든 시설에서 70대 이상의 고령 환자였고, 성별 비율은 남자 대 여자 환자의 비율이 2.8명으로 여자 치매환자의 비율이 약 3배 정도 높았으며, 이는 남자보다 여자의 치매 유병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치매환자는 식사, 배변, 옷을 입고 벗는 행동 등의 일상 행동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전문 간병인의 보호와 수발이 요구되며, 간병인 1인당 보호 환자는 평균 4.1명이었다. 노인 의복의 중요한 조건인 보온성과 관련된 병실내 온도는 중앙집중식 냉난방 장치에 의해 여름은 22~25℃, 겨울은 22~30℃의 온도가 유지되었다.

## III. 연구 결과

### 1. 치매환자복과 위생용품 현황

#### 1) 치매환자복의 유형

치매전문 치료 및 요양 기관에서 착용되고 있는 치매환자복의 유형을 치매 정도, 성, 사이즈, 계절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 (1) 치매 정도별 치매환자복의 유형

치매는 그 진행 정도에 따라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구분되는데, 치매 환자복은 경증 환자용인 일반 치매환자복과 중등증 이상 환자를 위한 중증 치매환자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치매환자들은 대부분 상하 분리형의 일반 환자복을 착용하였으며, 환자복 이외에 트레이닝복과 일반 옷을 병용하는 시설이 각각 두 곳, 환자별로 일반 옷을 착용하는 시설이 두 곳이었다. 치매병원 보다는 요양 시설에서 다양한 종류의 환자복이 착용되고 있었으며, 이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대체로 병원이라는 환경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개인적 물품 소지와 의복 착용을 통해 가정에서와 같은 안정된 분위기를 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증 치매환자들은 인지기능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단추를 뜯어내거나 옷을 마음대로 벗어 던지고, 배변물을 손으로 만지고, 기저귀를 뜯는 등의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증 치매환자의 이상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 시설에서는 중증 치매환자복으로 상하연결형의 우주복형 환자복이 주로 착용되었으며, 이러한 우주복형은 대부분 뒤쪽에 지퍼가 있고 상하의가 연결되어, 분리형 환자복에 비해 환자 스스로의 개폐동작이 어렵기 때문이다(홍나영, 1999). 치매 병원에서는 상하분리형의 일반 환자복이 그대로 착용되었으나, 환자복을 함부로 벗거나 단추를 뜯는 이상행동이 심한 경우에는 상의 앞트임이 뒤로 가도록 착용시켰다. 원피스형의 환자복은 와상의 중증 치매환자용으로 구비되어 있으나, 말려 올라가거나 끈 여밈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 (2) 성별 치매환자복의 유형

성별에 따른 치매환자복의 구분되는 곳은 조사대상의 약 50% 정도였다. 성별 구분은 주로 색상이나 문양에서 나타나며, 형태적 차이가 있는 시설은 2개뿐이었다. 트레이닝복을 착용하는 무료 요양시설에서 남성용은 앞트임과 지퍼 여밈의 상의와 여성용은 라운드 넥 상의로 구분하였으며, 또 다른 무료 요양시설에서 남성용은 앞트임, 여성용은 뒤트임의 상의로 구분하였다.

#### (3) 사이즈별 치매환자복의 유형

치매 환자복의 사이즈는 대체로 세 가지 정도였으며, 남녀 환자복의 사이즈 체계가 다른 시설은 한 곳 밖에 없다. 남자 환자복보다 여자 환자의 비율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사이즈 체계는 남자 환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체격이 작은 여자 환자들은 자신의 신체 사이즈에 비해 훨씬 큰 옷을 입거나, 대부분 많이 세탁하여 수축된 환자복을 착용하였다. 신체 사이즈보다 큰 환자복은 소매나 바지부리를 걷어 올려 입어야 하기 때문에 보행 시에 간혹 옷자락에 걸려 넘어지는 안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한경희, 김대련, 김옥태, 김인

4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4호, 2006

〈표 2〉 치매환자복과 위생용품의 현황

구 분	치매환자복 유형							관 리		위생용품 현황		
	치매 정도		성 별		사이즈	계 절		하루 벌수	수명 (년)	기저귀	기 타	
	일 반	중 증	남	여		하 절	동 절					
치매 및 노인 전문 병원	A	투피스형	원피스	흰색+푸른색 도트		L	긴팔 소매		5	1.5	팬티형 (일반, 특대)	일회용 매트패드 에이프런
	B	투피스형		흰색+푸른색 도트		소, 중, 대	긴팔 소매		1	.	팬티형(대)	일회용 매트패드 에이프런
	C	투피스형		흰색+푸른색 체크		중, 대	긴팔 소매		3	2	팬티형	에이프런 일회용 매트패드
	D	투피스형		푸른색	분홍색	소, 중, 대	7부 소매		6	1	팬티형 (대, 중, 소)	에이프런
	E	투피스A	투피스B	흰색+주황색 줄		여: L 남: XL, XXL	긴팔 소매		2	2	팬티형 (특대)	기저귀커버 에이프런 일회용 매트패드 요실금 팬티
	F	투피스형		복합색+미소니문양		소, 중, 대	긴팔 소매		5	1	팬티형(대)	에이프런
	G	투피스형		흰색+ 녹색도형	흰색+ 분홍도형	소, 대, 특대	긴팔 소매		3	2.5	팬티형	에이프런
	H	투피스A	투피스B	흰색+ 푸른색꽃	흰색+ 분홍색꽃	남: 중, 대 여: 소, 중, 대	티셔츠	7부소매	5	.	팬티형(중)	에이프런
	I	투피스형		연하늘색		100, 110, 120	7부 소매		3	1	팬티형 (대, 중)	방수시트, 에이프런
치매 요양 시설	J	트레이닝	우주복	노랑색+ 지퍼여밈	노랑색+ 라운드넥	L, XL, XXL	긴팔+ 면티,	긴팔+ 카디건	2	2	천기저귀, 팬티형	기저귀 커버 요실금 팬티 에이프런
		투피스형		흰색+꽃 하의;연두	흰색+꽃 하의;분홍		모시바지					
	K	투피스형	우주복	푸른색+ 앞트임	주황색+ 뒤트임	S, M, L	반팔 소매	긴팔+ 카디건, 조끼	2	1	천기저귀, 팬티형	기저귀 커버, 에이프런 방수 매트
	L	투피스형		주황색		소, 중, 대	긴팔 소매		4	5	천기저귀, 팬티형	기저귀 커버 에이프런
	M	투피스형		주황색		소, 중, 대	긴팔+ 면티	긴팔 소매	3	.	팬티형 (일반, 특대)	에이프런 방수 매트커버
	N	일반옷	우주복	.		L, XL, XXL	긴팔 소매		3.5	1	팬티형	기저귀커버 일회용 매트패드 에이프런
		투피스형		흰색+ 녹색글자	흰색+ 분홍글자							
	O	일반옷	투피스형	.		.	.		.	.	팬티형	요실금 패드 에이프런 방수 커버
	P	투피스형		흰색+ 분홍, 노랑색도형		M, L, XL	반팔소매	긴팔+ 조끼, 점퍼, 목도리, 내의	3	0.5	팬티형	에이프런 일회용 매트
	Q	투피스형	우주복	흰색+ 분홍, 주황 도형, 꽃		S, M L, XL	긴팔 소매		3	2	일자형	.
	R	투피스형	우주복	노랑색+ 푸, 노랑 버섯	푸른색+ 푸, 분홍 도형	소, 중, 대	긴팔소매		3	.	팬티형 (대, 중, 소)	기저귀커버
S	투피스형	우주복	흰색+ 녹색, 분홍색 꽃과 도형		소, 중, 대	긴팔 소매		3	0.5	팬티형 (대, 중) 천(대, 소)	기저귀커버 요실금 팬티 에이프런	
T	투피스형		흰색+ 푸른색줄	흰색+ 분홍색줄	소, 중, 대	7부 소매	긴팔 + 트레이닝	2	0.3	천(성별 구분)		
U	일반옷	투피스형	.		.	면티	카디건, 점퍼	.	.	일자형(대) 팬티형(특대)	기저귀 커버 에이프런 일회용 매트패드	

숙, 김정숙, 심 영, 정은희, 조명희, 최종명, 황태주, 2002). 홍나영(1999)의 연구에서도 분리형 일반 환자복의 사이즈 체계는 여자 노인환자에게 특히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계절별 치매환자복의 유형

계절에 따른 치매환자복의 유형을 살펴보면, 치매 병원의 병실 온도는 중앙집중식 냉난방기에 의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환자복 구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요양원에서는 하절기에 면섬유 소재 티셔츠를 병용하거나 반팔 소매의 환자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동절기에는 노인 환자들의 특성상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환자복 위에 덧입을 수 있는 카디건 스웨터나 조끼같은 겹옷을 제공하였다. 치매 요양시설은 병원과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 피복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피복 종류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2005).

#### 2) 치매 환자복 관리 현황 및 위생용품 사용 현황

치매전문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하루에 구비하는 환자복 수는 입원 환자 일인당 평균 3.24벌이었으며, 5~6벌까지 구비하는 곳도 있다. 치매환자들은 스스로 배변관리를 할 수 없어 대부분 기저귀를 착용하지만, 배변량이 많아 환자복을 더럽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환자복의 수가 많은 편이다.

치매전문 시설의 환자복의 수명은 평균 1.6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 이내에 교체되는 곳도 8곳이나 된다. 환자복에는 100% 면섬유 소재가 사용되고 있으나, 환자복은 오염제거와 위생상 반드시 고온살균 세탁을 해야 하며, 따라서 소재의 수축율이 심하고 빨리 마모되기 때문에 환자복의 물리적 수명이 길지 않다.

치매전문 시설에서 사용되는 위생용품의 종류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치매노인들이 일회용 종이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으며, 일부 요양원에서 자체적으로 천기저귀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회용 종이 기저귀는 소모량이 매우 많고, 폐기 비용이 별도로 들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많을 뿐 아니라, 재활용이 안 되어 환경오염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기타 위생용품으로는 노인환자의 배변량이 많아 기저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기저귀 커버나 침대 위에 까는 매트 패드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또한 모든 시설에서 식사 시에 방수 소재의 에이프린을 착용시켜 환자복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 2. 치매환자복의 디자인 특성

### 1) 일반 치매환자복의 디자인 특성

일반 치매환자복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으며, 트레이닝복과 일반 사복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분석 대상은 총 19개였다. 일반 치매환자복은 모두 상하분리형이면서, 상의는 앞트임과 단추 여밈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 환자복과 같은 형태이다. 칼라는 없는 형태이며, 네크라인은 브이넥과 라운드 넥이 50% 정도씩이었다. 네크라인과 앞단은 안단(인터페이싱) 처리가 16개(74.2%)로 가장 많았으며, 바이어스 단이나 파이핑 처리를 한 것은 3개(15.8%)였다. 소매 형태는 모두 일자형으로, 소매길이는 10부 길이가 16개(84.2%)였으며, 접어입어야 하는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는 7부 길이는 3개(15.8%)였다. 상의 주머니는 앞단의 아래 부분에 2개를 단 것이 13개(76.5%)로 가장 많았는데, 환자가 습관적으로 주머니를 뜯어내거나 물건을 감추는 경우가 있어, 환자복 관리상 불편하지만 미적 측면에서 주머니가 있는 환자복을 선택하였다.

하의는 모두 일자바지 형태이고, 그중에서 2개는 바지 부리에 접단을 댄 것이었다. 트임이 없고, 고무줄로 여미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며, 끈으로 여미는 형태가 1개였다. 바지 길이는 10부 길이가 16개(84.2%), 7부 길이는 3개(15.8%)였

〈표 3〉 일반 치매환자복의 디자인 특성 N=19

구분	종류	빈도(%)
의복 유형	상하분리형	19(100)
상의	트임 위치	앞트임 19(100)
	패스너	단추 19(100)
	네크라인 형태	라운드 넥 브이 넥 기타 8(42.1) 10(52.6) 1(5.3)
	네크라인 및 앞단처리	바이어스 단 안단 파이핑 2(10.5) 16(74.2) 1(5.3)
	소매 형태 소매 길이	일자 소매 7-8부 10부 19(100) 3(15.8) 16(84.2)
	주머니 갯수	없음 1개 2개 2(10.5) 4(23.5) 13(76.5)
하의	트임 위치	트임없음 앞트임 18(94.7) 1(5.3)
	패스너	고무줄 끈 18(94.7) 1(5.3)
	하의 형태	일자 바지 일자바지 + 부리 접단 18(94.7) 1(5.3)
	하의 길이	7부 길이 10부 길이 3(15.8) 16(84.2)
	하의주머니 갯수	없음 1개 2개 16(84.2) 2(10.5) 1(5.3)
	솔기	쌈솔 오버룩솔 10(52.6) 9(47.4)

## 6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4호, 2006

으며, 주머니가 없는 형태가 16개(84.2%), 1개 또는 2개의 주머니를 단 것은 3개(15.8%)이다. 솔기처리로는 싘솔과 오버룩솔이 반씩이었다.

## 2) 중증 치매환자복의 디자인 특성

중증 치매환자복의 디자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조사대상 중에서 중증 치매환자복의 유형이 구분되는 곳이 10곳이었으며, 그 중 한곳은 중증 치매환자복이 2종이었으므로 총 11벌을 분석하였다. 중증 치매환자복의 형태로는 상하연결형 의복인 우주복형과 원피스형이 각각 6개(54.5%), 1개(9.1%), 상하 분리형은 4개(36.4%)로 우주복형 환자복이 가장 많았다. 중증 치매환자복으로 착용되는 상하 분리형의 환자복은 일반 치매환자용으로 일반 사복과 트레이닝복을 착용하는 요양원에서 각각 착용되었으며, 다른 상하 분리형 환자복은 상의에 앞트임 외에 양 어깨 트임이 있으며, 나머지 상하 분리형은 상의 길이가 무릎길이하 내리오는 차이가 있다.

중증 치매환자복의 여밈 특징을 살펴보면, 상하 분리형은 앞트임에 단추를 사용하며, 연결형 중에서 원피스는 앞트임에 끈을, 우주복은 상의에 뒤트임이 있고, 하의의 가랑이 부위에 기저귀 교체용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밀트임이 있으며 지퍼를 사용하였다. 칼라 없는 형태이며, 넥라인의 형태는 라운드 넥이 8개(72.7%), 브이넥은 3개(27.3%)였다. 소매길

이는 10부 길이가 8개(72.7), 7부 길이가 3개(27.3%)였다. 소매형태는 일자 소매가 8개(72.7%), 일자 소매에 부리 부분의 고무줄 조임단이 있는 것이 1개, 일자 소매에 부리 부분의 겹단이 있는 것이 2개였다. 바지 형태 역시 일자 바지가 8개(72.7%), 일자 바지에 부리 부분의 고무줄 조임단이 있는 것이 1개(9.1%), 일자 바지에 부리 부분의 겹단이 있는 것이 2개(18.2%)였다.

## 3. 치매환자복 선택시 고려 사항

치매전문 시설에서 환자복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사항을 형태 및 구성, 색상, 소재, 사이즈, 가격, 추구 의복 이미지 특성으로 구분하여 내용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5>와 같다.

형태 및 구성적 특징에 대한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상하 분리형 환자복의 상의 선택에는 넥라인 디자인과 앞단 처리, 파스너의 종류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넥라인은 칼라가 없으면서, 노인들의 주름진 목이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목선이 많이 파지지 않은 것을 선택하였다. 앞단은 세탁시 가장 많이 헤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파이핑이나 바이어스 단으로 처리하였는지를 고려한다. 파스너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추는 세탁시 잘 떨어지거나 부서지는 것이 문제이며, 지퍼는 고장이 잘 나고, 노인들의 피부에 배길 수 있으며, 환자복의 단가를 높이는 문제가 있다. 또한 중증 치매환자는 단추를 뜯어내거나 옷을 함부로 벗어 던지기 때문에 단추가 튼튼하게 달린 정도와 단추 구멍의 크기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 분리형 환자복의 하의는 거의 모든 치매환자들이 기저귀를 차기 때문에 밑위길이가 충분해야 하며, 밑아래 부분의 바느질이 튼튼하거나 덧단을 댈 필요가 있다. 파스너로 많이 사용되는 고무줄은 고온세탁에 의해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자주 교체해야 하지만, 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가 눌리거나 응급 시에는 잘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 상대적으로 더 불편하다. 또한 하의 길이가 길고 품이 넓으면 바지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커지므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주복형은 입고 벗기는 착탈 과정의 편이성과 기저귀 교체가 매우 큰 문제이다. 특히 치매환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착탈 과정이 용이하지 않은 환자복은 치매환자를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간병인의 간병 부담을 높이기 때문에 결국 치매환자들의 치료 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 환자들은 치매나 다른 본래의 임상적 질환 외에 대부분 편마비나 거동불편을 수반하기 때문에 노인환자복에 관한 연구에서는 착탈 동작에 관한 분석이 의미있게 다루어져야 하며(김순분, 1991; 홍나영, 1999; 홍나영, 지운영, 2000; 문

<표 4> 중증 치매환자복의 디자인 특성 N=11

구 분	종 류	빈 도(%)
의복 유형	상하분리형	4(36.4)
	연결형(원피스)	1( 9.1)
	연결형(우주복)	6(54.5)
트임 위치	앞트임	4(36.4)
	뒤트임 + 밀트임	6(54.5)
	앞트임 + 어깨트임	1( 9.1)
파 스 너	단추	4(36.4)
	끈	1( 9.1)
	지퍼	6(54.5)
넥라인 형태	라운드 넥	8(72.7)
	브이 넥	3(27.3)
넥라인 및 앞단 처리	바이어스 단	8(72.7)
	안단	3(27.3)
소매 형태	일자소매	8(72.7)
	일자 소매 + 부리에 고무줄단	1( 9.1)
	일자 소매 + 부리에 겹단	2(18.2)
소매길이	7부 길이	3(27.3)
	10부	8(72.7)
주머니 갯수	2개	3(27.3)
	없음	8(72.7)
바지 형태	일자 바지	8(72.7)
	일자 바지 + 부리에 고무줄단	1( 9.1)
	일자 바지 + 부리에 겹단	2(18.2)

〈표 5〉 치매환자복 선택시 고려사항

구 분		선 택 기 준
형태 및 구성	상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크라인- 디자인, 목선이 많이 파지지 않은 것, 칼라없는 것</li> <li>• 앞단 - 잘 헤지지 않도록 파이핑이나 바이어스 단처리</li> <li>• 주머니 - 환자가 뜯거나 물건을 감춤, 환자가 좋아함</li> <li>• 단추 - 잘 떨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것, 간단히 조작 가능한 것</li> <li>• 단추구멍 - 환자가 쉽게 열 수 없는 것</li> <li>• 지퍼 - 고가, 잘 고장남, 환자가 쉽게 열수 없는 장치 필요, 배기지 않도록 해야 함</li> </ul>
	하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밑위길이 충분한 것(기저귀 커버)</li> <li>• 허리고무줄 - 허리가 편안한 것, 세탁하면 늘어남, 두꺼우면 피부 자극</li> <li>• 끈 - 배가 눌리거나 응급시 불편</li> <li>• 바지부리 넓지 않은 것(대넒이나 고무줄 여밈 필요)</li> <li>• 바지부리가 말림</li> <li>• 바지길이가 너무 길면 환자가 넘어질 위험</li> <li>• 밑아래 - 튼튼한 바느질, 삼각대형을 담</li> </ul>
	우 주 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저귀 교체하기 쉬운 것</li> <li>• 벨크로(찍찍이) 단 것</li> <li>• 입고 벗기 용이한 것</li> </ul>
색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밝은 색상</li> <li>• 깔끔해 보이는 것</li> <li>• 차가와 보이지 않는 것</li> <li>• 화려한 색상</li> </ul>
소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탁후 수축이 심하지 않은 것</li> <li>• 피부에 쾌적한 것, 피부 질환 고려</li> <li>• 잦은 세탁과 삶음으로 빨리 해짐</li> <li>• 부드러운 것</li> <li>• 신축성 있는 것</li> <li>• 실용적인 것</li> <li>• 100% 면은 구김이 심함</li> <li>• 삶아도 얼룩이 남는 경우가 많음</li> </ul>
사 이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즈가 다양하지 못함</li> <li>• 여환자의 경우 크기가 잘 맞지 않음</li> <li>• 세탁할수록 수축하기 때문에 사이즈 변화 심함</li> <li>• 허리사이즈 맞추면 가장 길어짐</li> <li>• 관리하기 용이하도록 사이즈별 색상을 달리할 필요</li> </ul>
가 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주 교체해야 하므로 가격을 중요하게 고려</li> <li>• 디자인이 좋은 것은 가격이 비쌌</li> <li>• 소량 주문시 가격이 비쌌</li> <li>• 국가지원이 있는 경우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음</li> </ul>
의복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복 느낌이 나지 않는 것</li> <li>• 한복스타일, 한복 느낌이 나는 것</li> <li>• 평상복처럼 화사하고 기능이 편리한 것</li> <li>• 선택의 폭이 좁음,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함</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상 환자복 개발 필요</li> <li>• 양말이나 덧신 개발 필요</li> </ul>

은희, 2003), 또한 여밈 장치로 지퍼 외에 다른 대체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색상은 치매환자복의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치매환자들은 다른 부분에 대한 인지기능은 거의 없으나, 화사하고 밝은 색상이나 꽃문양의 의복에 대한 선호와 애착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치매에 따라 손상되는 인지기능의 종류와 속도 등의 양상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 중에서 시각적 예민성이나 색채변별력은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되기 때

문이라 할 수 있다(Mendez, Cherrier, & Perryman, 1997; 한승경, 2003). 따라서 치매환자복 선택 시에는 주로 밝고 화사한 색상이나 깔끔해 보이는 색상, 차가와 보이지 않는 색상 등을 선호하였다.

병원 환자복은 병원관련 위생법에 있어 고온살균 세탁이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100% 면섬유 소재를 사용하는데, 면섬유는 세탁에 의한 수축성이 가장 큰 문제이다. 따라서 환자복을 구입할 때에는 처음부터 환자들의 신체 크기에 비해 크



고 제대로 맞지도 않는 사이즈의 환자복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수축방지가공의 소재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 소재와 관련하여 다른 문제점으로는 세탁을 많이 하여 빨리 헤지기 때문에 튼튼해 보이는 것이 중요시되었으며, 그 외에 환자의 피부에 쾌적하고 부드러운 것, 구김이 심하지 않은 것, 활동성과 착탈 편의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는 소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사이즈는 남성의 사이즈 체계를 중심으로 상하분리형은 세 가지, 연결형 우주복은 두 가지 정도 밖에 개발되어 있지 않아 사이즈의 다양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일본의 경우는 품목이나 사이즈의 구분이 규모나 내용면에서 노인의 체형특성을 고려하면서도 훨씬 더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어(홍나영, 2000),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의 성별, 체형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사이즈 체계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치매환자복은 제품수명주기가 짧아 교체빈도가 높고, 치매환자 일인당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가격은 환자복 선택 시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이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환자복의 구매를 제한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치매환자복에서 추구되는 의복 이미지는 환자복 느낌이 나지 않거나 평상복처럼 화사한 환자복을 선호하였다. 또한 대부분 노인환자들이기 때문에 한복스타일이나 한복의 느낌이 나는 것도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앞으로 개발되는 환자복은 기능성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안정과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감성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외상 치매환자용 의복이나 양말, 실내용 덧신같은 다양한 품목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심미성과 기능성이 향상된 치매환자복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전국의 치매전문 치료 및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치매환자들이 착용하는 환자복과 위생용품의 사용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치매정도에 따라 일반 치매환자들은 대부분 상하분리형의 일반 환자복을 착용하였다. 이상행동의 빈도가 높은 중증 치매환자들은 혼자서 환자복을 벗을 수 없도록 우주복형의 환자복을 착용하였으며, 일반 치매환자복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착용방법을 달리 하였다. 또한 치매환자의 성별에 따른 치매환자복의 사이즈나 형태적 구분은 거의 없었으며,

주로 색상과 문양의 차이가 나타났다. 계절에 따른 환자복의 종류로는 하절기에 면 티셔츠나 짧은 소매의 환자복을 착용하기도 하였으며, 동절기에는 스웨터나 조끼를 덧입는 경우가 있다. 사이즈는 성별 구분없이 대체로 세 가지 정도였다.

둘째, 치매전문 시설에서 구비하는 환자복 별수는 입원 환자 일인당 하루 평균 3.24벌이었으며, 교체주기는 평균 1.6년이었다.

셋째, 치매환자용 위생용품으로는 일회용 기저귀의 사용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기저귀 커버나, 매트리스 커버, 식사용 에이프런 등이 사용되었다.

넷째, 일반 치매환자복의 디자인은 상하분리형의 일반 환자복과 같은 형태이며, 중증 치매환자복으로 가장 많이 착용되는 것은 뒤트임과 밑아래 트임에 지퍼가 있으면서 상하의가 연결된 우주복형이었다.

다섯째, 치매전문 시설에서는 치매환자복 선택 시에 네크 라인 디자인이나 앞단이 빨리 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단 처리방법, 기능적이면서 치매환자의 이상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트임과 여밈 장치의 종류, 밝고 화사한 색상, 착탈 과정이 편리한 구조, 소재의 수축성, 가격, 의복 이미지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현재 착용되고 있는 치매환자복에는 개선이 요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능적이고 쾌적한 치매환자복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체적 기능과 인지 기능이 동시에 저하되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치매의 임상적 특성과 의복 환경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치매환자들은 환자복과 기저귀를 자주 교체해야 하는 것이 의생활 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이다. 따라서 개폐가 용이하고 기저귀 교체가 쉬운 기능적 구조의 치매전문 환자복 개발은 환자와 간병인 모두에게 신체적 편안함과 쾌적함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파스너로 단추와 고무줄, 지퍼 등이 주로 쓰이는데, 치매환자의 이상행동이나 신체적 불편함, 간병인들의 노동 부담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여밈 수단과 트임에 대한 실용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는 치매환자들은 70대 이상의 고령이면서, 여자 환자가 더 많은 실정이지만 이에 따른 배려가 거의 없다. 노화에 따른 체형 변이와 성별에 의한 신체적 차이를 반영한 기능적 디자인과 실질적인 사이즈 체계의 개발을 통해 치매환자의 감퇴하는 신체적 기능을 최대한 보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치매 환자들에게 색채 인지 능력이 가장 오래 남아 있다는 사실은 향후의 치매환자복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치매환자들의 시공간 지



각능력의 저하를 최소화시키고, 정서적인 안정과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색상이나 미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시각과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치매환자들의 치료 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병원 환자복은 고온살균세탁을 거의 매일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 수명이 매우 짧고, 수축성이 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는 치매환자와 치료시설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환자복의 사이즈 체계 구축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열에 강한 기능적 신소재 개발, 수축방지와 마모 방지 가공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른 질환에 비해 환자복과 기저귀의 소모량이 많은 치매병원의 입장에서 경제적 문제는 가장 현실적 문제이며, 환자복의 선택과 구매에 결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매,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복과 위생용품, 간병 및 수발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 체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 임상 치료 환경의 효과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 ■ 참고문헌

국민일보(2005. 9. 20). 21일 세계치매의 날-치매관리 주역 구구.

김남초, 유양숙, 한숙원(2000). 치매노인에게 있어 시청각 자극을 병행한 회상요법의 작용효과. *대한간호학회지*, 30(3), 98-109.

김순분(1991). 거동불편 노인의 가족관계와 의·식생활에 관한 연구 -편마비 노인의 운동능력 특성과 의생활-. *대한가정학회지*, 29(2), 17-34.

김재민, 신일선, 김성완, 양수진, 정슬기, 윤진상(2004). 지역사회 거주 치매노인 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판 부양자 활동 조사(CAS-K)의 개발. *대한신경과학회지*, 22(4), 322-327.

김혜경(1999). *신체장애와 특수의복*. 서울: 교문사.

나덕렬, 강연옥(1997). 치매의 신경학과 신경심리학적 특성. *한국임상심리학회 월간 학술발표회 자료집*.

문은희(2003). 침상노인 환자복의 현황분석 및 디자인 제안.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2005).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05). 노인복지시설 현황(<http://www.mohw.go.kr/index.jsp>).

유광수(2001). 노인성 치매환자를 간호하는 가족의 부담감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5(1), 125-147.

이강오(2003). 치매환자가족의 삶의 질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2(1), 15-26.

한경희, 김대년, 김옥태, 김민숙, 김정숙, 심 영, 정은희, 조명희, 최종명, 황태주(2002). *노인성 치매연구*. 서울: 교문사.

한승경(2003).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의 신경심리기능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나영(1999). 거동 불편 노인에 대한 기능성 의복 연구. *복식문화연구*, 7(2), 289-303.

홍나영, 지윤영(2000). 거동 불편 노인에 대한 기능성 의복 연구(2). *복식문화연구*, 8(6), 899-914.

Lishman W. A. (1978). *Organic Psychiatry: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cerebral disorder*. Oxford Blackwell Scientific publication.

Mendez, M. F., Cherrier, M. M., & Perryman, K. M. (1997). Differences between Alzheimer's Disease and Vascular Dementia on Information Processing Measures. *Brain and Cognition*, 34(2), 301-310.

(2005년 10월 27일 접수, 2006년 3월 2일 채택)